

## 권 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님, 이사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2년 전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아 행·재정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학술부회장으로 기회를 얻고자 출마한 한국교통대학교 권일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행·재정부회장에 출마하면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려 노력해 왔으며, 김찬호 회장님과 최봉문 학술부회장님을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행·재정부회장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엄격하여 대면으로 학회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다행히 올해부터는 일상으로 회복하여 대면으로 학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행·재정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낮은 자세로 학회와 회원들을 위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학술부회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연구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부회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차기 학회장님의 정책 비전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장님을 도와서 학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학술대회를 행·재정부회장, 학술위원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8월에는 우리 학회가 주관이 되어 연세대학교에서 ICAPPS(International Conference Asia Pacific Planning Societies)가 열리게 됩니다. 국제위원장님과 연세대학교 교수님들과 협업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회의 얼굴인 「국토계획」의 SCOPUS 등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력 중인데,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술분야의 정보의 전달 수단인 도시정보, 도시TV, 학회소식지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상 적절한 수준에서 국토도시계획 분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학술위원장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다음 개정 때에는 반드시 국토도시분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들의 활동과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회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춘계학술대회 또는 각종 위원회에서 지방연구원세션, 엔지니어링세션, 공공행정세션 등의 분야에서 참여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원과 청년회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충청지회장과 지역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회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지회뿐만 아니라 지회 간 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회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회원인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토·도시 분야의 위상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새로운 활로 모색, 공무원 5급 도시계획직 공채 도입 등 학회 위상 강화에 대한 노력은 역대회장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역대 회장단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의 중요한 축인 도시공학 및 도시계획학과와 졸업생 및 도시계획 업계를 위하여 다양한 회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국토·도시 분야의 새로운 업역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유관 학회 및 외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처음으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건설주택포럼과 함께 춘계산학학술대회를 열고 있고, 도시의날에는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지역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도시계획기술사회, 국토연구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계학술대회에는 기존 참여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학회, 도시행정학회 등 유관 학회도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님, 이사님 그리고 회원여러분, 위의 약속사항은 제가 행·재정부회장에 출마하면서 드린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앞으로 우리학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술부회장이 된다면 다양한 학회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분야와 협력을 통하여 앞서 드린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행·재정부회장 출마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여가 즐거운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즐거움이 가미되어 참여 동기가 샘솟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학술부회장 입후보자  
권일 올림